

BNC 구어체 자료를 활용한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양상과 의미유형분석

황현미

(부산대학교)

Hwang, Hyunmi. (2019). A study on the use pattern and semantic analysis of the English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in the spoken text of the British National Corpu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2), 1-17.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tern of the delexical constructions and semantic coherence between delexical verbs and nouns. The semantics of the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is analyzed focusing on *do*, *give*, *have*, *make* and *take* retrieved from the spoken texts of the British National Corpu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forms identical to those of the main verbs are preferred to the derived forms and among the constructions of *have* and *make* are preferred among the delexical verbs combined to the same nouns. Five semantic categories, such as sensory, physical, mental, goal-oriented, and result-driven activities are suggested to classify the semantics of the nouns in the constructions.

주제어(Key Words): 탈어휘동사구문(delexical verb constructions), 탈어휘동사(delexical verbs), 구어체(spoken texts), 의미 분석(semantic analysis), 의미범주(semantic category)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퍼스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양상과 의미유형분석에 관한 연구로, 5가지의 탈어휘동사 *do*, *give*, *have*, *make*, *take*와 결합하는 명사의 빈도수를 살펴보고, 명사의 2가지 형태와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의 선호도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유형을 분류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를 5가지 유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탈어휘동사구문(delexical verb construction)은 ‘동사+부정관사+명사’의 구조에서 동사의 원형적인 의미는 약해지고 뒤따르는 명사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을 뜻한다(Sinclair and Fox,

1990). 이러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동사를 탈어휘동사(delexical verb)¹⁾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do, give, have, make, get, take* 등이 있다. 다음 (1)은 대표적인 탈어휘동사구문들의 예들이다.

- (1) a. I'm going-- ask you to do an exercise now and split you into groups of three(BNC JSE 234).
- b. You can think very hard where the player takes a breath(BNC FMC 330).
- c. I don't know I'll have, have a look(BNC D97 2003).
- d. I mean to make a contribution(BNC D97 1657).
- e. Oh, I see she hasn't actually given a talk, but she's going to(BNC DCH 76).

Benson(1989)은 탈어휘동사의 표현이 자의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어의 결합이므로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지만, 탈어휘동사구문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규칙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arter and McCarthy, 1988; Sinclair, 1991; Lewis, 2000). 이와 관련하여 Hill(2000)은 탈어휘동사구문은 모국어 화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지만 외국어 학습자들이 습득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모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탈어휘동사구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탈어휘동사의 형태와 관련해서 Kearns(1988/2002)는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통사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황현미(2014)는 British National Corpus(이하 BNC)와 Corpus of Contemporary of American English(이하 COCA) 코퍼스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를 분류하여 의미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고광윤과 정운형(2015)은 *have*와 *take*와 결합할 수 있는 탈어휘동사구문 20쌍을 대상으로 BNC와 COCA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적인 쓰임을 영미영어의 차이, 장르별, 연도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ierzbicka(1982)는 탈어휘동사

1) Jespersen(1965: 11)은 이러한 동사를 경동사(light verb)라고 칭하고 단순히 인칭(person)과 시제(tense)를 표시한 기능을 하며, 의미적 중요성은 적은 동사라고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탈어휘동사는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Poutsma(1926)는 집단동사(group verbs), Stein(1991)과 Stein and Quirk(1991)은 동사-명사 어구 또는 구문(verbo-nominal phrases or constructions), Live(1973)는 take-have 어구(take-have phrases), Wierzbicka(1982)는 우회동사 구조(periphrastic verbal structures) 등이 있다.

*have*구문을 10가지 의미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통사적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Stein and Quirk(1991)는 *have*, *take*, *give*1, *give*2구문과 결합하는 명사를 11가지 의미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탈어휘동사가 어떤 의미유형의 명사를 더 선호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Dixon(1991)은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의 의미유형을 [MOTION AND REST], [AFFECT], [GIVING], [CORPOREAL]의 4가지로 구분하고 명사의 유형에 따라 결합 가능한 탈어휘동사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탈어휘동사구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have*와 *take*구문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에서의 사용양상을 비교분석하거나 두 구문의 의미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have*와 *take*구문 이외에 사용빈도가 높은 *do*, *give*, *make* 등의 구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탈어휘동사구문은 의사소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위해서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양상을 파악하고 의미적으로 결합가능성이 높은 탈어휘동사와 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탈어휘동사구문은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구어체 자료를 추출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적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2. 탈어휘동사구문의 특성

2.1. 탈어휘동사구문의 형태적 특성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는 동사와 동일한 형태와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의 형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어 Dixon(2005)은 명사가 반드시 동사와 형태가 동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Huddleston and Pullum(2002: 290)은 동사가 접사첨가(affixation)를 통해서 명사화(nominalization)가 된 경우, 즉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도 탈어휘동사구문으로 인정한다. Kearns(1998/2002)는 탈어휘동사 *give*와 결합하는 명사를 진정경동사(true light verb)와 모호성행위동사(vague action verb)로 구분한다. 진정경동사는 *give the floor a sweep*, *give a groan*, *have a lick of this ice-cream*등에서처럼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반면, *make an inspection*, *give a demonstration*, *do the ironing*등과 같이 모호성행위동사는 동사파생명사의 형태이다. Kearns(1998/2002)는 진정경동사와 모호성행위동사는 수동태, *wh*이동, 대명사화, 한정성, 보충어 NP(noun phrase)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아래에 제시된 (2)에서 관련예문들을 살펴보자.

- (2) a. *A pull was given (on) the rope.
- b. An inspection was made some time last week.
- c. *Which pull did John give on the rope?
- d. Which explanation did the second witness give for the delay?
- e. ??The decreased gave a groan at around midnight, and gave another one just after two.
- f. If you can give a presentation after lunch, I'll give one/mine after yours.
- g. *Who gave the groan just now?
- h. The representative who gave the demonstration left his card.

(Kearns, 2002: 2-3)

예문(2a, c, e)에서 진정경동사는 수동태로 전환할 때 주어 가 될 수 없고, *wh*이동의 초점이 될 수 없으며, 대명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문(2b, d, f)에서 모호성행위동사는 수동태로 전환 시 명사가 주어 가 될 수 있으며, 명사는 *wh*이동의 초점이 될 수 있고, 부정대명사 *one* 또는 소유대명사 *mine*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예문(2g)에서 진정경동사는 부정관사 *a* 와 함께 쓰이며 정관사 *the*와 함께 쓰이면 비문이 되거나 애매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예문(2h)에서 모호성행위동사는 부정관사뿐만 아니라 정관사 *the*와 함께 쓰일 수 있다.

2.2.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

탈어휘동사구문은 화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Qiurk, et al., 1985). 즉, ‘주어+동사+목적어’의 구조가 ‘주어+동사’의 구조보다 더 안정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역동성(dynamism)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주어+동사’ 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 a. Fred attempted to persuade Helen for several minutes.
- b. Fred made an attempt to persuade Helen for several minutes.
- c. I saw the man perform the Indian rope trick.
- d. I saw the man give a performance of the Indian rope trick.
- e. Jason imitated the teacher.
- f. Jason gave an imitation of the teacher.

(Cattell, 1984:11-17)

위의 예문(3a, c, e)의 ‘주어+동사’ 구조이고 예문(3b, d, f)는 ‘주어+동사+목적어’구조로 탈어

휘동사구문이다. ‘주어+동사’구조와 비교했을 때, 탈어휘동사구문인 (3b)에서 목적어 *attempt*는 행위의 일회성을 나타내며 예문(3d)의 *performance*는 ‘청중 앞에서’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예문(3f)에서 *give an imitation*은 ‘선생님 흉내를 내다’라는 의미만을 가지지만 주어+동사 구조인 (3e)에서는 ‘선생님의 행위를 따라하다’는 의미와 ‘흉내내다’의 의미를 둘 다 갖는다. 즉, 탈어휘동사구문은 ‘주어+동사’구조보다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Wierzbicka(1982), Stein and Quirk(1991), Dixon(1991)은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유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Wierzbicka(1982)는 탈어휘동사 *have*와 결합하는 명사를 다음의 (4)와 같이 10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예시를 보여주었다.

- (4) a. 목적 없는 개별행위(aimless objectless individual activity)
 - e.g. a walk, a swim, a run
- b. 지각과 관련된 행위(action aiming at perception)
 - e.g. a look (at), a listen
- c. 잠정적 행위(tentative action):
 - e.g. a try, a look for
- d. 반 자발적 행위(semi voluntary action):
 - e.g. a cough, a yawn
- e. 대상물의 부분 섭취(consumption of small of parts of objects):
 - e.g. a bite, a lick,
- d. 개별화되지 않는 대상물 섭취(consumption of non-discrete substances):
 - e.g. a drink of, a smoke
- e. 실체와 관련된 활동(activity superficially involving another entity):
 - e.g. a kick of the football, throw of the boomerang, read
- f. 자기 주도적 행위(self directed action):
 - e.g. a wash, a shave
- g. 공동의 신체활동(joint bodily activity):
 - e.g. a kiss, a cuddle
- h. 공동의 구어활동(joint speech activity):
 - e.g. a chat, a gossip

(Wierzbicka, 1982: 762-788)

Stein & Quirk(1991: 199)은 탈어휘동사 *have*, *take*, *give*₁, *give*₂와 결합하는 명사를 다음과 11가지의 의미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5) a. 지각(perception): e.g. She gives him a look.
- b. 정신활동(mental activity): e.g. I went for a walk and had a think.
- c. 구두활동(verbal activity): e.g. They began by having little chat.
- d. 섭취(consumption): e.g. He took a sip.
- e. 몸 관리(bodily care): e.g. She had a quick wash.
- f. 신체활동(physical action): e.g. Brock took her real swim.
- g. 잠정적 행위(tentative action): e.g. It might be worth having a try.
- h. 비자발적 반응(involutionary reaction): e.g..... have given the guilty start.
- i. 잠재적인 자발적 반응(potentially voluntary reaction):
e.g. Garrett gave a forced-sounding laugh.
- j. 자발적 반응(voluntary reaction): e.g. Rose gave a shout of joy.

(Stein & Quirk, 1991: 199)

Dixon(1991)은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를 [MOTION AND REST], [AFFECT], [GIVING], [CORPOREAL]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MOTION AND REST]는 *run, sit, throw, drop*과 같은 실질적인 움직임과 이동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비활동을 나타낸다. [AFFECT]는 *hit*과 *touch*와 같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와 관련되며, [GIVING]은 소유의 이동을 나타낸다. [CORPOREAL]은 *drink, fart, bite, sniff* 등으로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Wierzbicka(1982), Stein and Quirk(1991), Dixon(1991)이 제시한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명사의 의미유형은 주로 사람의 감각과 신체와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의미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미유형을 참고하고, 제한점은 보완하여 5가지의 의미유형을 제안할 것이다.

3.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양상과 의미분석

3.1. 연구자료

본 연구는 BNC²⁾에서 구어체 텍스트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탈어휘동사는 *do, give,*

2) BNC는 약 1억 단어의 대규모의 영국영어 코퍼스로서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구어체는 형식별, 장르별, 대화자의 나이, 성별, 연령 등을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POS-tag의 검색이 용이하며, 추출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제공한다.

*have, make, take*의 5가지를 선택하고 ‘탈어휘동사+a(n)+명사’의 구조를 검색하기 위해서 ‘{탈어휘동사/V} a(n) _NN1’의 검색어³⁾를 사용한다. 단, *give*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구문은 ‘*give*+부정관사+명사’와 ‘*give*~ +부정관사+명사’의 2가지 구조 중에서 다른 탈어휘동사와 동일한 구조인 ‘*give*+부정관사+명사’의 구조만을 선택한다. 다음 <그림 1>은 BNC에서 ‘탈어휘동사+a(n)+명사’의 구조를 추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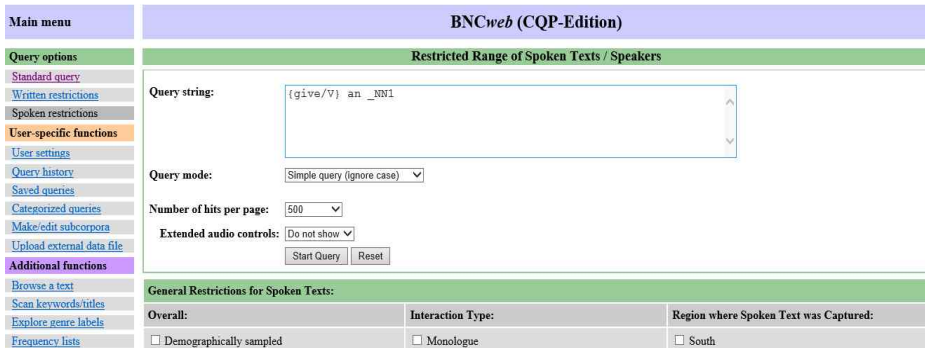


그림 2. BNC 구어체에서 탈어휘동사구문 검색

다음 <표 1>은 5가지 탈어휘동사구문의 빈도수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를 나타낸다.

표 1. 탈어휘동사구문의 빈도수(BNC 구어체)

	do	give	have	make	take
빈도수(회)	1419	516	10347	1985	1054
결합하는 명사	491	240	1827	441	350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면서 빈도수 5회 이상인 명사	8	5	81	41	16

BNC 구어체에서 ‘탈어휘동사+a(n)+명사’ 구조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면, *do*는 1419회, *give*는 516회, *have*는 10347회, *make*는 1985회, *take*는 1054회이며 총 빈도수를 기준으로 보면 *have*>*make*>*do*>*take*>*give*순으로 나타났다. Live(1973: 33), Wierzbicka(1982: 756), Quirk et al.(1985: 725)등은 탈어휘동사구문에서 *have*와 *take*의 선택은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지역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영국영어에서는 *have*를 선호하고, 미국영어에서는 *take*를 선호한다⁴⁾. 따라서 영국영어를 토대로 만들어진 BNC에서 *take*구문보다 *have*구문의 빈

3) {탈어휘동사/V}는 POS-tag를 사용하여 동사의 모든 형태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사 *give*의 경우 *give, given, gave, gives, giving*의 형태를 모두 포함시켰다.

도수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를 살펴보면, *do*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는 491개, *give*는 240개, *have*는 1827개, *make*는 441개, *take*는 350개이다. 명사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have>do>make>take>give*순으로 나타났다. 결합하는 명사중에서 탈어휘동사구문으로 빈도수 5회 이상인 경우, *do*구문은 8개, *give*구문은 5개, *have*구문은 81개, *make*구문은 41개, *take*구문은 16개이며 비율이 높은 구문은 *have>make>take>do>give*로 나타났다. 다음은 빈도수 5회 이상의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⁵⁾를 보여준다.

(6) do a(n)

survey, deal, evaluation, sort, study, copy, run, exercise

(7) give a(n)

answer, talk, lecture, signal, indication,

(8) have a(n)

look, drink, bath, chat, agreement, election, copy, conversation, phone, feeling, guess, sort, indication, input, choice, abortion, answer, operation, shower, break, list, rest, discussion, vote, fog, walk, talk, laugh, fight, dream, tendency, view, need, record, report, sleep, run, seat, wash, change, check, test, call, ride, shave, lift, read, telephone, try, visit, reply, lecture, bet, competition, complaint, dance, note, photograph, plan, sit, bite, comment, contact, deal, drop, pay, shock, stand, struggle, thought, trial, concern, cut, joke, knock, planning, response, review, rise, statement, taste,

(9) make a(n)

decision, note, mistake, mess, profit, change, contribution, comment, statement, list, move, loss, start, suggestion, phone, noise, fuss, presentation, claim, payment, recommendation, sort, wish, offer, choice,

4) Stein(1991: 21-22)은 *have*와 *take*의 선택은 단순한 지역적 차이가 아니라, 탈어휘동사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침취동작과 관련된 탈어휘동사구문인 *have a bite/sip* 보다는 *take a bite/sip*을 사용했다면, 소유(having) 또는 획득(getting)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 탈어휘동사구문에서의 명사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보통명사와 결합하는 동사+명사의 구조에서 동사는 본동사의 의미를 가지므로 보통명사를 제외시켰으며(예: make a cake), 두 번째, 본동사(main verbs)의 의미와 탈어휘동사구문은 동일해야하며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예: make a go)는 제외시켰다. 세 번째, 명사의 형태는 본동사와 동일한 경우와 동사파생명사를 둘 다 포함한다. 네 번째, ‘탈어휘동사+부정관사+명사’의 구조를 갖지만 ‘탈어휘동사+부정관사+명사+전치사’의 구조로써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시켰다(예: have a set on).

assumption, joke, speech, success, impact, impression, bid, approach, complaint, judgement, prediction, report, study, submission, announcement, appearance

(10) take a(n)

look, view, picture, decision, photograph, breath, photo, vote, break, copy, risk, step, joke, bite, seat, walk

3.2.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양상

3.2.1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형태

탈어휘동사구문의 명사의 형태는 동사와 동일한 형태와 동사파생명사의 형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Kearns(1998/2002)는 탈어휘동사구문의 명사의 형태에 따라 통사적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Kearns(1998/2002)는 연구 범위를 *give*구문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ive*구문뿐만 아니라 *do*, *have*, *make*, *take*구문에서 명사의 형태를 동사와 동일한 형태와 동사파생명사로 구분하여 선호되는 명사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는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과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구분된다. 명사의 형태를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형태

	동사와 동일형태	동사파생명사	합계
do	3(37.50)	5(62.50)	8(100.00)
give	4(80.00)	1(20.00)	5(100.00)
have	64(79.01)	17(20.99)	81(100.00)
make	23(56.10)	18(43.90)	41(100.00)
take	14(87.50)	2(12.50)	16(100.00)

*괄호 안에 숫자는 비율(%)을 나타낸다.

위의 <표 2>을 살펴보면, 탈어휘동사 *do*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는 총 8개이고, 이 중에서 동사와 동일한 형태인 명사는 3개이며 37.50%를 차지한다. 동사파생명사의 형태인 명사는 *presentation*, *correlation*, *demonstration*, *drawing*, *trial*로 5개이며, 62.50%를 차지한다. 동사 *give*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는 5개이며, 동사와 동일한 형태의 명사는 4개이고 동사파생명사의 형태인 명사는 *indication*으로 1개이다. 비율은 각각 80.00%, 20.00%이다. 동사 *have*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는 82개이며, 동사와 동일형태는 64개, 동사파생명사는 17개이다. 비율은 각각 79.01%, 20.99%이다.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를 갖는 명사는 *agreement*, *collection*,

*conversation, feeling, indication, abortion, operation, discussion, tendency, seat, competition, complaint, thought, trial, planning, response, statement*이다. 동사 *make*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는 42개이며, 동사와 동일한 형태의 명사는 23개이고 56.10%의 비율을 갖는다. 동사파생명사인 명사는 *decision, contribution, statement, loss, suggestion, presentation, payment, recommendation, choice, assumption, speech, impression, complaint, judgement, prediction, submission, announcement, appearance*이며 총 18개이고 43.90%의 비율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동사 *take*와 결합하는 명사의 수는 16개이고 동사와 동일한 형태는 14개,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는 *decision*과 *seat*로 2개이다. 각각의 비율은 87.50%, 12.50%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do*구문은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으며, *give, have, make, take*구문은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의 형태가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명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행위성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Quirk et al.(1985)은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동사파생명사는 동사의 특성과 명사의 특성을 함께 지니지만 동사의 행위적 의미보다는 명사의 구체성(specificity)과 더 관련되므로 탈어휘동사와 결합되는 빈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가지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Dixon(1991: 461)은 동사 *make*가 대부분의 경우 동사파생명사와 결합하며 특히 *thinking, deciding, speaking*과 같이 명사화접사 *-ing*와 결합하는 형태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동사 *make*와 결합하는 명사는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보다는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경우가 더 많다.

3.2.2.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는 동일한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 <표 3>은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와 빈도수를 비교해서 다른 동사에 비해 선호되는 구문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와 빈도수

명사	결합하는 탈어휘동사		선호되는 구문
1 talk	give(8회)	have(20회)	have a talk
2 lecture	give(7회)	have(8회)	have a lecture
3 look	have(1499회)	take(44회)	have a look
4 bite	have(6회)	take(5회)	have a bite
5 seat	have(13회)	take(5회)	have a seat
6 walk	have(22회)	take(5회)	have a walk

7	decision	make(91회)	take(14회)		make a decision
8	sort	do(6회)	make(10회)	have(42회)	have a sort
9	joke	make(8회)	take(6회)	have(5회)	make a joke
10	copy	do(5회)	take(8회)	have(64회)	have a copy
11	answer	give(9회)	have(39회)		have an answer
12	indication	give(6회)	have(40회)		have an indication
13	note	have(7회)	make(73회)		make a note
14	change	have(12회)	make(38회)		make a change
15	study	do(6회)	make(5회)		do a study
16	view	have(16회)	take(24회)		take a view
17	photograph	have(7회)	take(13회)		take a photograph
18	report	have(15회)	make(5회)		have a report
19	statement	have(5회)	make(31회)		make a statement
20	list	have(33회)	make(26회)		have a list
21	choice	have(39회)	make(9회)		have a choice
22	phone	have(47회)	make(17회)		have a phone
23	vote	have(23회)	take(10회)		have a vote
24	break	have(33회)	take(8회)		have a break
25	deal	have(6회)	do(17회)		do a deal
26	run	have(13회)	do(5회)		have a run
27	comment	have(6회)	make(32회)		make a comment
28	complaint	have(7회)	make(5회)		have a complaint

하나 이상의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총 28개이며, 그 중에서 명사 *sort*, *joke*, *copy*는 3가지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며, 나머지 25개는 각각 2가지 탈어휘동사와 결합한다. 탈어휘동사와 명사의 결합을 빈도수로 비교해보면, 25개의 명사 중에서 탈어휘동사 *have*와 결합을 선호하는 총 19개이며, *talk*, *lecture*, *look*, *bite*, *seat*, *walk*, *sort*, *copy*, *answer*, *indication*, *report*, *list*, *choice*, *phone*, *vote*, *break*, *run*, *complaint*이고, *make*를 선호하는 명사는 *decision*, *joke*, *note*, *change*, *statement*, *comment*로 총 6개이다. *take*를 선호하는 명사는 *view*와 *photograph*, *do*를 선호하는 명사는 *study*와 *deal*로 각각 2개씩으로 나타났다.

동사의 선호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have* > *make* > *take*, *do* 순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take*보다는 *have*를, *make*보다는 *have*를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높지만, 위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서로 대체될 수 있는 탈어휘동사를 *have-take*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BNC 구어체에서는 *have-take*보다는 *have-make*에 대한 선호도 차이⁶⁾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6) BNC 구어체에서 추출한 탈어휘동사구문중에서 서로 대체가능한 탈어휘동사 *have-take*와 *have-make*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 *have-take*: *look*, *bite*, *seat*, *walk*, *photograph*, *vote*, *break*

b. *have-make*: *note*, *change*, *report*, *statement*, *list*, *choice*, *phone*, *comment*, *complaint*

3.3.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의 의미유형분석

2장에 살펴보았듯이, Wierzbicka(1982), Stein & Quirk(1991), Dixon(1991)은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유형은 제시하였다. 명사의 의미유형을 살펴보면, 사람의 감각과 신체와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에만 국한되어있다. Dixon(1991)은 사람의 신체동작 이외에 명사들을 [AFFECT]와 [GIVING]으로 제안하였지만 각 의미유형에 제시된 예시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 보이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BNC 구어체에서 추출한 *indication, note, list, vote* 등의 명사를 의미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ierzbicka(1982), Stein and Quirk(1991), Dixon(1991)이 제시한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의 의미유형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음의 5가지 의미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5가지 유형은 감각활동(sensory activity),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정신활동(mental activity), 목표 지향적 활동(goal-oriented activity), 결과 지향적 활동(result-driven activity)이다. 감각활동은 인간의 5가지 감각과 관련된 활동으로 미각(taste), 시각(sight), 청각(hearing), 촉각(touching), 후각(smell)을 모두 포함한다.

Wierzbicka(1982)가 제시한 지각과 관련된 행위, 공동의 구어활동, 대상물의 섭취, 개별화되지 않는 대상물 섭취의 의미유형이나 Stein and Quirk(1991)가 제시한 지각, 구두활동, 섭취의 의미유형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give an answer, have a taste, take a view* 등에서 명사는 모두 인간의 감각과 관련된다. 신체활동은 인간의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없는 비활동(inactivity)을 포함한다. *do a run*과 *make a move* 등은 신체적인 움직임을, *take a break*와 *have a sleep* 등에서 명사는 휴식이나 비활동을 나타낸다. Wierzbicka(1982)는 신체활동을 목적 없는 개별행위, 반 자발적 행위, 자발적 행위, 실체와 관련된 활동, 공동의 신체활동으로 세분화하였고 Stein and Quirk(1991)는 몸 관리와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였다. Dixon(1991)이 제시한 [CORPOREAL]의 의미유형은 감각활동과 신체활동을 둘 다 포함하고 있으나 감각활동은 인간의 지각과 관련되므로 이를 신체활동과는 별개로 분류하였다. 정신활동은 생각이나 판단 또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 등을 나타낸다.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do an evaluation, have a guess, make an assumption* 등에서 명사는 생각이나 판단을 나타내고 *have a laugh* 또는 *have a shock*에서 명사는 각각 즐거움과 놀람 또는 충격의 감정을 나타낸다. 목표 지향적 활동은 특정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또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11)을 보자.

- (11) a. Why don't you have a try of this(BNC KDW 4949)?
- b. Anybody want to make a contribution(BNC J9D 703).
- c. And when you actually do a study such as this, where do you go for

source material(BNC KRH 1693)?

d. I am going to take a risk and say what I think about local radio....(BNC KRP 1255)

예문(11a, d)에서 *try*와 *risk*는 특정한 목표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리고 예문(11b, c)에서 *contribution*과 *study*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향적 활동은 행위로 인해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하였거나 가시적인 결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do a copy, make a change, take a photo*등에서 명사는 행위로 인해 복사물, 변화, 사진이라는 결과물이 존재한다. 다음 <표 4>는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를 5가지 의미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4. 탈어휘동사구문에서의 명사의 의미유형분류

	do	give	have	make	take
감각 활동		talk, answer, lecture	look, drink, chat, lecture, answer, comment, conversation, talk, view, bite, taste, response, reply, call, joke, joke telephone, phone, statement	speech, comment, statement, phone, joke, announcement	look, view, bite, joke
신체 활동	run, exercise		bath, shower, walk, sleep, run, seat, rise, wash, shave, dance, sit, break, rest, lift, ride, drop, cut, knock, fight	move	break, step, seat, walk, breath
정신 활동	evaluation		guess, dream, stand, thought, concern, feeling, agreement laugh, choice, shock, discussion, check, tendency, struggle	assumption, decision, choice, judgement, prediction, claim, wish	decision
목표 지향적 활동	survey, sort, study, deal	signal, indication	fag, sort, review, competition, read, indication,	contribution, start, presentation, report payment,	risk

		complaint, try, trial, visit, pay, visit, plan, planning, bet, deal, contact, input, report, test,	appearance, recommendation, sort, offer, success, impact, mistake, approach, fuss, study, submission, complaint, noise, mess, impression, suggestion
결과 지향적 활동	copy	election, copy, vote, change, photograph, list, abortion, note, operation, record	profit list, bid, loss, change, note picture, photograph, photo, vote, copy

감각활동으로 분류되는 명사들은 주로 눈(eyes)과 입(mouth)과 관련된다. 눈과 관련된 감각 활동은 *look*과 *view*이다. 입과 관련된 감각활동은 2가지로 하위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먹기 (eating)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기(talking)와 관련된다. 먹기는 *drink, bite, taste*이고 말하기는 *talk answer, lecture, chat, conversation, comment, speech, phone, statement, announcement, joke, reply, response, reply, call, telephone*이다. 신체활동은 *lift, ride, drop, cut, knock, shave*등과 같이 신체 이외에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과 *walk, breath, step* 등과 같이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또한 활동과 비활동으로 구분하면, 활동은 *bath, shower, walk, step, wash, run, dance*등 신체의 움직임이나 이동을 나타 내며 비활동은 *sleep, rest, break*등과 같이 휴식을 취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정 신활동은 감정과 생각 또는 의견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는 *laugh, shock feeling*등이고 생각 또는 의견을 나타내는 명사는 *guess, assumption, judgement, prediction, discussion*등이다. 목표 지향적 활동은 *fag, risk, try, trial, visit*등과 같이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와 *study, plan, competition, test*등과 같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지향적 활동은 행위로 인한 상태의 변화와 결과 물의 창조와 관련되며, *change, loss, abortion*등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copy, photo*등은 결과물의 창조를 나타낸다. 다음 <표 5>는 명사의 의미유형분류를 분석한 것이다.

표 5. 탈어휘동사구문에서의 명사의 의미유형분석

	do	give	have	make	take
감각활동	0(0.00)	3(60.00)	19(23.46)	6(14.63)	4(25.00)
신체활동	2(25.00)	0(0.00)	19(23.46)	1(2.44)	5(31.25)
정신활동	1(12.50)	0(0.00)	13(16.05)	7(17.07)	1(6.25)
목표 지향적 활동	4(50.00)	2(40.00)	22(27.16)	21(51.22)	1(6.25)
결과 지향적 활동	1(12.50)	0(0.00)	9(11.11)	6(14.63)	5(31.25)

합계	8(100.00)	5(100.00)	81(100.00)	41(100.00)	16(100.00)
----	-----------	-----------	------------	------------	------------

*괄호 안에 숫자는 비율(%)을 나타낸다.

명사의 의미유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o*구문에서 명사의 의미는 목표 지향적 활동(4)>신체활동(2)>정신활동(1), 결과 지향적 활동(1)순으로 나타났고, *give*구문에서 명사는 감각활동(3)> 목표 지향적 활동(2)순으로 나타났다. *have*구문은 목표 지향적 활동(22)> 감각활동(19), 신체활동(19)> 정신활동(13)> 결과 지향적 활동(9)이며 *make*구문은 목표 지향적 활동(21)> 정신활동(7)> 감각활동(6), 결과 지향적 활동(6)> 신체활동(1)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ake*구문에서 명사는 결과 지향적 활동(5), 신체활동(5)> 감각활동(4)> 목표 지향적 활동(1), 정신활동(1)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어휘동사 *do*는 목표 지향적 활동, *give*는 감각활동, *have*와 *make*는 목표 지향적 활동, *take*는 신체활동과 결과 지향적 활동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BNC 구어체를 활용하여 *do*, *give*, *have*, *make*, *take*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양상과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유형분석을 통해 탈어휘동사구문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규칙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Kearns(1998/2002)는 *give*구문에서의 명사의 형태를 동사와 동일한 형태와 동사파생명사의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다른 탈어휘동사구문에 확장하여 *give*구문뿐만 아니라, *do*, *have*, *take*, *make*구문에서도 명사의 2가지 형태를 구분하였으며 그에 대한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do*구문은 동사파생명사의 형태의 빈도수가 높으며, 나머지 *give*, *have*, *make*, *take*구문은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명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명사와 관련하여, 동일한 명사와 결합하는 탈어휘동사의 선호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해보았는데, 하나 이상의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 29개에 대한 탈어휘동사의 선호도는 *have*(19)>*make*(6)>*take*(2), *do*(2)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유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미유형을 5가지로 제안한다. 의미유형은 감각활동, 신체활동, 정신활동, 목적 지향적 활동, 결과 지향적 활동으로 구분한다. 각 탈어휘동사별로 연구 자료의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do*, *have*, *make*구문은 목표 지향적 활동, *give*구문은 감각활동, *take*는 신체활동과 결과 지향적 활동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어휘동사구문에서 탈어휘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전체 구문의 의미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의 의미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탈어휘구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탈어휘동사구문 전체의 의미적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이 본 논문이

해당분야에 기여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have, take*구문에 치중되어있고 탈어휘동사구문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문어체와 구어체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BNC 구어체 자료만을 활용하여 5가지 탈어휘동사구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탈어휘동사구문의 사용에 있어 명사의 형태와 명사별 탈어휘동사의 선호도, 그리고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명사의 의미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탈어휘동사구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의미적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명사의 의미유형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규칙성에 따라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하는 탈어휘동사를 예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BNC 코퍼스 자료는 영국영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구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have*구문의 수가 많으며 *do*와 *give*구문의 수는 적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코퍼스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광윤·정운형. (2015). 영어 경동사 Have와 Take의 변이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영어학 연구*, 21(1), 1-27.
- 황현미. (2014).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코퍼스기반 의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Benson, M. (1989). The structure of the collocational dictionary.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1), 1-14.
- Carter, R., & McCarthy, M. (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Cattell, R. (1984).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17)*. Sydney: Academic Press.
- Dixon, R. (1991). *A new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n semantic princip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R. (2005).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omkin, V., Rodman, R., & Hyams, N. (200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Boston, MA: Heinle and Heinle.
-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pp. 47-69).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Huddleston, R., & Pullum, G.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42).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Kearns, K. (1998/2002). *Light verb in English*. Cambridge, Mass: MIT Press.
- Leech, G., Hundt, M., Mair, C., & Smith, N. (2009). *Change in contemporary English: A grammatical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M. (2000). Language in the lexical approach.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pp. 133-134). London: Language Teaching.
- Live, A. H. (1973). The *take-have* phrasal in English. *Linguistics*, 95, 31-50.
- Poutsma, H. (1926).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for the use of continental, especially Dutch students*. Groningen: Noordhoff.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inclair, J., & Fox, G. (1990).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London: Collins.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in, G. (1991). The phrasal verb type 'to have a look' in Modern English. *IRAL* 29, 1-29.
- Stein, G. & Quirk, R (1991). On having a look in a corpus. In K. Aijmer & B. Altenberg(Eds.), *English corpus linguistics* (pp. 197-203). London: Longman.
- Wierzbicka, A. (1982). Why can you have a drink when you can't * have an eat? *Language*, 58, 753-799.

황현미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이메일: s005hwang@nate.com

Received on February 19,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22, 2019

Accepted on June 30, 2019